

---

#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주요결과

---

2023. 3.



개인정보보호위원회

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

## I 조사 개요

- (목적) 정보주체(국민)와 개인정보처리자(공공기관, 민간기업)의 개인 정보보호 인식 수준,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준수현황 등 파악  
⇒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- (근거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조의8 및 제67조
- (기간) 2022. 9. 1. ~ 10. 31. ※ (응답기준) 2021.12.31
- (대상) 공공기관 1,000개, 종사자수 1인 이상 사업체 8,000개, 만 9세 이상 만 79세 이하 4,000명(만 19세 이하 아동·청소년은 별도 조사)
- (방법) 방문조사(이메일, 유선 보완)
- ('22년 성과) 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\* 이후 첫 조사로, 대외 공표 가능한 국내 최초 개인정보 관련 공식 통계 산출
  - \* 「통계법」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지정(승인번호: 179001호, 승인일: 2022.9.8.) 및 조사명 변경('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→ '22년 개인정보보호및활용조사)

### < 전년대비 변동사항 >

#### 개인정보보호 국가통계 산출 및 맞춤형 데이터 제공 기반 마련

##### [2021년] 실태조사 통합기

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통계 조사 물리적 통합 및 통계청 컨설팅 등 추진

- 조사명 :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
- 조사개요

구분	대상(총 7,000개(명))
공공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부부처, 지자체, 공기업, 시도교육청, 초·중·고·대학교, 공공병원 1,500개</li> </ul>
민간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종사자수 1인 이상 3,000개 (비례할당 표집 조사)</li> </ul>
정보 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소년(만12세~만19세) : 500명</li> <li>일반국민(만20세~만69세) 2,000명</li> </ul>

##### [2022년] 실태조사 도약기

최초 개인정보 관련 국가통계 산출 추진 및 정책, 연구, 산업 수요 등을 반영한 조사대상 확대·세분화

- 조사명 :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
- 조사개요

구분	대상(총 13,000개(명))
공공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공공기관] 정부부처, 지자체, 공기업 등 800개</li> <li>[교육기관] 시도교육청, 대학교 200개</li> </ul>
민간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종사자수 1인 이상 8,000개 (종사자 규모별 가중 표집을 통한 맞춤형 조사)</li> </ul>
정보 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동·청소년(만9세~만19세)</li> <li>일반국민(만20세~만79세) } 4,000명</li> <li>* 모든 정보주체 보호 및 온라인 경제활동 연령 확대를 고려 하여 조사 연령을 만9세 이상 아동 및 고령층까지 추가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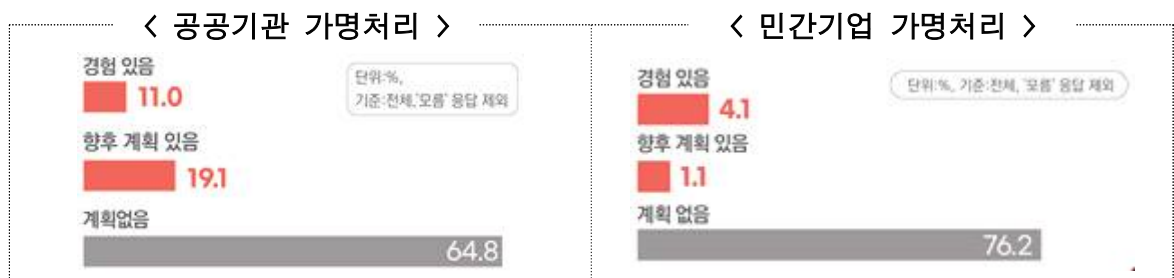
## 가. 개인정보처리자 (공공기관, 민간기업)

## 1 개인정보 현황 · 활용

- (수집목적) 개인정보 수집목적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‘인사·채용’(각각 84.9%, 82.4%), ‘고객·회원관리’(각각 56.4%, 54.7%)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


- (빅데이터) 빅데이터 분석·활용 경험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은 30.7%, 민간기업은 8.3%임
- (가명처리) 가명처리 경험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은 30.1%이나, 민간기업은 5.2%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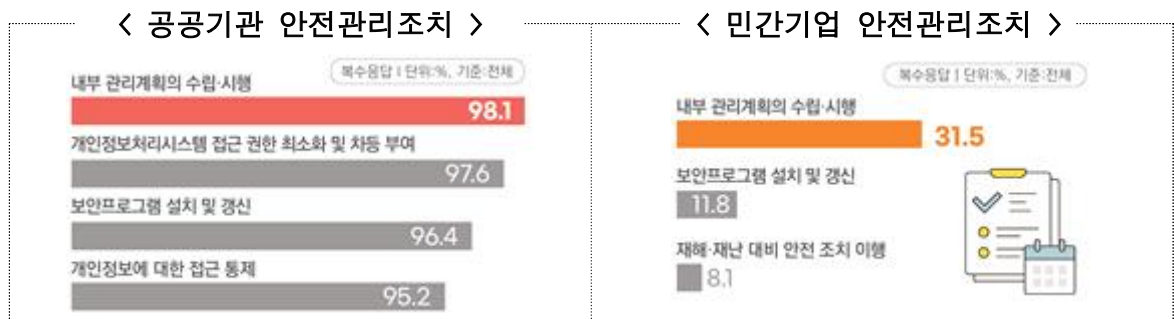


- (가명처리 애로사항) 공공기관은 ‘전문인력 부족’(62.2%), ‘기술 교육·지원 부족’(59.7%), 민간기업은 ‘기술 교육·지원 부족’(10.3%), ‘전문인력 부족’(6.7%) 순으로 나타남

- (마이데이터)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전송 경험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은 7.0%, 민간기업은 0.6%임
- (마이데이터 애로사항) 공공기관은 '국민 인식 및 홍보 부족'(33.9%), '전송인프라 부족'(31.7%), 민간기업은 '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'(72.7%), '전송인프라 구축'(25.3%) 등으로 응답함

## 2 개인정보 보호

- (안전관리조치) 공공기관은 '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'(98.1%), '접근 권한 최소화 및 차등부여'(97.6%) 등, 민간기업은 '내부관리계획'(31.5%), '보안프로그램 설치·갱신'(11.8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- (개인정보처리시스템)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방식으로 자체구축하여 운영중인 비율은 공공기관 77.6%, 민간기업 47.2%이며,
  -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비율은 공공기관 22.4%, 민간기업 52.8%임
- (예산규모) '21년 개인정보보호 예산규모는 공공기관은 '1,000만원~1억원'(47.4%)이 최대로, 전년대비 증가되었다는 응답이 52.7%였으나,
  - 민간기업은 '10만원~100만원 미만'(36.7%)이 최대로, 전년대비 예산에 변동 없다는 응답이 91.4%로 나타남

- (개인정보보호 담당자) 공공기관 평균 1.8명, 민간기업 평균 1.4명(CPO 제외)
- (개인정보보호 책임자) CPO 업무경력은 공공기관에서 '2년 미만'이 65.4%로 최대, 민간기업에서는 '5년~10년 미만'이 32.2%로 최대임

〈 공공기관 업무경력 〉			〈 민간기업 업무경력 〉		
단위: %, 기준: 전체			단위: %, 기준: 전체		
	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	개인정보 보호담당자		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	개인정보 보호담당자
2년 미만	65.4	45.0	2년 미만	3.0	33.9
2년~3년 미만	13.4	17.5	2년~3년 미만	10.6	37.4
3년~5년 미만	8.8	8.2	3년~5년 미만	25.3	14.0
5년~10년 미만	4.2	9.2	5년~10년 미만	32.2	14.3
10년 이상	4.0	0.0	10년 이상	28.9	0.0
없음	4.2	20.1	없음	0.0	0.5

### 3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정책 제언

- (인식)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공공기관 87.4%, 민간기업 83.2%로 높게 나타남
- (업무 애로사항)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최대 애로사항으로 공공기관은 '인력 부족'(78.7%), 민간기업은 '법률 이해 어려움'(40.1%)을 선택

〈 공공기관 애로사항 〉			〈 민간기업 애로사항 〉		
복수응답 단위: %, 기준: 전체			복수응답! 단위: %, 기준: 전체		
	인력부족	78.7		관련 법률 내용 이해 어려움	40.1
	예산부족	47.3		개인정보 보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	16.2
	개인정보처리 절차 등의 복잡성	45.5		개인정보 처리절차 복잡성	15.6

- (정책수요) 정책 우선순위로 공공기관 '인력개발'(58.9%), 민간기업 '처벌 규정 강화'(44.6%)로 응답함

〈 공공기관 정책수요 〉		〈 민간기업 정책수요 〉	
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등 인력개발	58.9	과태료 행정 처분 등 처벌규정의 강화	44.6
개인정보 관련 제도 또는 법률 상담 서비스	44.0	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한 처벌규정의 차등화 및 합리화	24.0
콘텐츠 개발 및 보급, 무료 교육 기회 확대	43.1	정부의 교육 및 홍보	23.1

## 나. 정보주체 (일반국민, 아동·청소년)

### 1 개인정보 제공·활용

- (제공) 온·오프라인에서 '다중이용시설 출입 확인'\*(각각 83.9%, 82.3%), '금융서비스 이용'(각각 55.5, 68.7%)을 위해 개인정보를 주로 제공  
\* '21년 기준 응답으로 코로나19 상황 반영



- (제공 빈도) 오프라인 및 온라인 모두(다중이용시설 제외) 개인정보를 '한달에 1회 이상'(각각 33.2%, 30.4%) 제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
- (동의 내용 확인)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등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비율은 37.8%로 낮게 나타남
- (미확인 이유) '번거로움'(37.4%), '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'(32.7%) 등



- (행태정보 수집)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인지하는 정보주체는 39.8%임
- (행태정보 제공)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위해 행태정보 제공 의향이 있는 정보주체는 25.0%(제공의 대가로 맞춤형 서비스 또는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)임



○ (가명처리)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경우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할 의향이 있는 정보주체는 36.7%임

- (우려사항) 가명처리 시 우려사항은 '해킹 등 정보 유출' (65.2%), '개인정보가 재식별될 가능성'(62.8%) 등으로 나타남



## 2 정보주체 권리보장 및 마이데이터 현황

○ (권리 인식) 본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·삭제 등을 요청할 권리를 인지하는 정보주체는 32.2%임

- (요구 경험) 권리를 인지한 응답자 중 12.5%가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험이 있고, 세부항목별로 '열람'(10.6%), '정정·삭제'(9.6%), '처리정지'(3.2%)의 경험이 있음

○ (처리방침)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정보주체는 37.5%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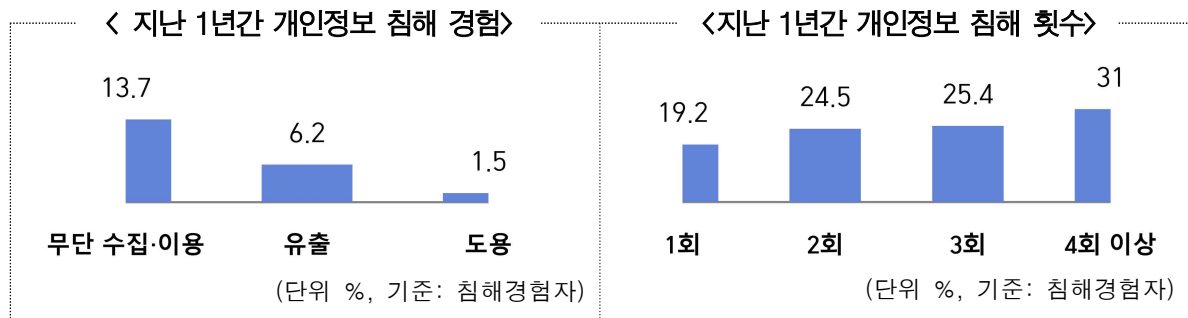
- (미확인 이유) '내용이 많고 어려움'(47.7%), '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낌'(40.7%), '방침과 상관없이 상품·서비스 이용 필요'(34.7%) 등

○ (마이데이터) 마이데이터를 인지하고 있는 정보주체는 36.9%임

- (적용분야) 마이데이터 도입 시 유용할 분야로 '보건·의료'(64.5%), '금융'(63.7%), '정보·통신'(56.2%), '교육'(27.9%), '고용·노동'(24.9%)을 선택
- (고려사항) 전 분야로 확대 시 고려사항은 '개인정보 저장·관리 서비스'(52.8%), '간편한 동의절차 및 충분한 설명'(48.7%), '보안'(41.9%), '이력관리'(29.9%), '정보 제공시 인센티브'(29.3%) 순으로 응답함

### 3 개인정보보호

- (침해 경험) 정보주체의 17.1%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했고, 침해 유형은 '무단 수집·이용'(13.7%), '개인정보 유출'(6.2%) 등 순으로 나타남



- (인식)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86.1%
- (보호/활용)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활용의 중요도에 대해 '보호가 더 중요'(48.5%), '둘 다 중요'(43.1%), '활용이 더 중요'(8.4%)로 응답
- (정책수요) 우선되어야 할 정부정책은 '교육 및 홍보'(58.0%), '차별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'(46.7%), '전문인력 양성'(44.9%) 순으로 선택함

### 4 아동·청소년

- (SNS) 아동·청소년의 74.3%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, 이 중 18.7%가 SNS에 자료를 올릴 때 정보 공개범위 제한을 해본 경험이 있음
- (보호자의 개인정보 제공) 보호자가 본인의 사진,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경험은 49.7%로, 이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는 의견이 41.0%를 차지함

